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제 안 설 명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문장길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서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문장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과 환경수자원위원회 선배·동료 위원님께 지난 10월 15일 본 의원이 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건의안의 취지를 말씀드리자면,

2009년 중·소규모 숙박업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1회용품 무상 제공 금지 업종이었던 숙박업(7실 이상)에 대한 1회용품 사용과 무상제공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규제 완화 취지가 중·소규모 숙박업의 영업활동을 지원한다는 목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을 통해 50실 이상의 대규모 숙박업소까지 규제 완화에 포함되면서 규제완화의 범위가 다소 과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또한, 당시 무상 제공 금지 업종으로 유지된 목욕장업과 비교할 때 1회용 면도기 및 칫솔 사용량이 목욕장업과 같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숙박업소만 1회용품 무상 제공 금지 업종에서 제외되면서 오히려 1회용품 사용을 장려한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을 통해 1회용품 사용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최근의 상황과 여가문화 변화에 따른 숙박업소의 증가 추세 등에 비추어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는 시설에 숙박업소를 포함하도록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포해드린 원안을 참조해 주시길 바라며,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